

당신은...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건강과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는 큰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제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셔서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제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나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은 제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암학교 3기’ 안내

3학기 암 재발 전이 방지 관리

- 2014. 2. 16.(일) 오전 10시

▶ 특별 수업 안내

- 암 환자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학교
- 암 치료 로드맵 1:1 멘토링 상담

문의 : 031)590-7639

대상 : 암 환자와 보호자

장소 : 남양주시 수동면 비릉로 1782번지

참가비 : 학기당 1만 원

주최 : 에덴요양병원 전암힐링센터

▶ 셔틀버스 안내

09:00 마석역(2번 출구) - 에덴요양병원



에덴요양병원이 SNS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 @Edenhospital
- 홈페이지 : www.edenah.com
- 에사모(에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facebook.com/Edenhospital#/Edenesamo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 www.youtube.com/user/TVEdenah
- 네이버 : 에덴요양병원

직원동경

환영합니다

| | |
|---------------|---------------|
| 김명인 10. 1 간호부 | 박세중, 김순옥 처녀 |
| 안재현 10. 1 간호부 | 박여진 결혼 11. 24 |
| 유계순 11. 1 간호부 | |
| 김정형 12. 1 간호부 | |
| 이신애 12.15 간호부 | |
| 김해영 12.15 간호부 | |

축하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영희(208호) 김미정 선생님의 밝고 넘치는 에너지에 입원생활에서 큰 위안과 행복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208호 김영희 님을 칭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김미라(315호) 차량기사님, 미끄러운 눈길을 마다않고 환우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차량기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김세진(208호) 208호로 처음 병실을 옮기는 날부터 든든한 말언니가 되어주신 멧방이 김영희 환우를 칭찬합니다.

박미향(103호) 에덴에서 자연치유 할 수 있어 감사. 환우들의 사랑의 손길과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무명 209호 환우님들을 칭찬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힘이 되도록 격려해 주고 운동하고 물 마시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정재명(기획실) 208호 환우들을 칭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랑하여 연구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꼭 아름답습니다~

무명 정재명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에덴뉴스를 잘 편집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에게도 너무나 친절히 상담해 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편집후기

비워야 산다고 환우들에게 이야기 하면서도 진짜 나는 비우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걱정도 비우고 염려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내가 사랑하던 것도 비우면 그 제사야 진짜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우는 과정에서 아깝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비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은 가장 연연한 인간이 무한한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에게로부터 또 다른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에덴뉴스> 편집실
(36pr@naver.com)



한국 생활 개혁 운동 닥터 디톡스캠프

방청소는 매일 하면서 내 몸 청소는 왜 안하십니까? 최고의 환경, 의료진과 함께하는 닥터 디톡스캠프! 지금까지의 다른 캠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혈압, 당뇨, 비만에서 회복을 원하는 분의 희소식! 혈압, 당뇨, 정상화 후 약물복용 감소 및 중단 가능!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모집오강

기간 : 2014년 2월 10일부터 1주일 단위(월요일~일요일)로 신청 (1주 참가 후 기간 연장 가능함) 연중 무휴
대상 : 당뇨,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성인병 개선 및 예방을 원하는 분
장소 : 에덴요양병원 별관

프로그램 일정

내용 : 디톡스(야채, 과일즙), 현미, 유기농 자연식, 건강강의, 뉴스타트
1주차-디톡스(생녹즙, 생과일즙)
2주차-보식, 현미와 채식, 각종 프로그램(2주차는 신청자에 한 함)

접수안내

등록비 : 1주 과정-30만원 2주 과정 -50만원
모집인원 : 매주(월요일~일요일)선착순(입금자 순) 50명 마감 (본인이 원하는 기간 선택가능)
입금계좌 : 기업은행 492-003503-01-073 에덴요양병원

등록 및 전화상담

대표전화 : 031)590-7575
담당자 : 031-590-7565, 010-3296-3605

질병을 이기는 사람들

늘~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 - 김미라(난소암, 46세)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를 꿈꾸곤 한다.

다. 내게는 암환자 타이틀이 주어진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몸속 악성세포 이야기가 내게는 "당신은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가 원했던 특별한 로또당첨이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미래를 재창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나는 부지불식 중에 중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타이틀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13년 하반기 건강검진에서 발견 된 난소종양을 제거하면서, 함께 시행한 조직검사로 난소암이 발견 되었고 8월에는 광범위자궁절제술이라는 광범위하게 이곳저곳을 잘라내는 암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난 암환자가 되었고 특별해졌다. TV에서 봤던 암환자들처럼 공포와 좌절 등의 몇 단계 소용돌이를 거치고 겨우 차린 정신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수술과 대체의학에 대한 자료수집이었다. 대체의학에 대한 자료수집 중 에덴요양병원을 알게 되었고 병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수술이 불가피함도 알게 되었다. 항암수사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기로 하고 암수술 전 암세포를 모아주고 크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주파열치료 시술을 받았으며 면역 증강제인 자다신 등을 처방 받았다.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었다. 수술 후 병원에서 항암주사치료를 거절하고 곧바로 에덴요양병원에 입원 했고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첫발자국이란 얼마나 신선하며 또한 얼마나 생경한 것이었는지. 뉴스타트라는 8가지 생활 원칙 속으로 내 닫힌 발자국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늦게까지 깨어 있던 습관을 고치고, 안마시던 물을 마시고,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직장도 그만 두고,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과도 만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는데 내가 스스로의 곱질에 쌓여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뉴스타트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 단계인 '믿음'이다.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라는 것이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절망으로 바뀌는 특성을 가졌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나약한 인간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동안 고집했던 곱질을 깨버리자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회복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보였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었기에 희망을 한 기분이었을까 그저 생명 주시는 그 분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40여 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고 심을 한꺼번에 얻은 기분이었다. 삶은 사람들과 일들이 전달만해졌고 나중에는 이해가 되었으며 날 선 마음은 부드럽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욕심이 없어졌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점차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난 발병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

에덴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항암치료를 왜 거부 했냐는 것이었다. 글을 쓰는 지금도 향후에도 난 항암주사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위장과 체력이 약해 항생제나 진통제도 잘 못 견디 나였기에 항암주사를 받고 났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다. 아주 유명한 명리보다도 내 몸에 대한 최고의 주지하는 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의사의 강권이나 주변의 권유보다는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반문해 보았다. 항암고통에 대한 회피는 아닌가?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어떤가? 항암치료 시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 항암



치료 후 재발이나 전이율은 또 얼마나 되나?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나는 항암을 하지 않겠다 였다. 그리고 에덴에 구비된 천연항암치료제인 압노바와 자다신 고주파온열치료기 등을 통해 치료를 진행했으며 퇴원 후엔 약을 처방받아 집 근처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 또한 집에서 나태해지고 힘들 때면 정기적으로 에덴에 입원해 관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조영제나 방사능 물질을 투여 받아 검사하는 검사법 대신 스마트암검사로 주요기관의 암을 검진하고 피검사를 통해 난소종양자수, 황성산소, NK세포수, 백혈구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와 관찰을 하면서 적당히 잊어버리고 적당히 실수도 하면서 즐겁게 뉴스타트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암환우가 나 같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무턱대고 항암치료를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저마다 병의 깊이와 몸 상태가 다를 것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 무조건 의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갈피를 못 잡고 어려울 때 에덴요양병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처음 암에 걸려 절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 치료법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겠다.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꼭 하나님을 만나보길 권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하루 열심히, 드라마 시크릿가든 속 현빈의 말처럼 "이게 최선이지 확실해!" 하며 살아내면 된다.

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다. 나는 발병 후 1년 4개월이 지났으며 아직까지는 전이나 재발의 징후가 없다. 암환자에게 발병 후 생존기간은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인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암 환자에게 원치란 없다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인 것이기 때문이다. 5년 혹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잘 관리해 원치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시에 무너질 수 있기에 평생관리라는 숙제를 가진 사람들이 암환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중에도 방심하지 않고 'ing' 인 상태로 속제 잘하는 모범생이고 싶다. 답이 금방 튀어나오는 문제가 올 땐 혼자 잘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혼자 힘들다고 떼도 쓰면서 살고 싶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안 먹는 삶.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절제 할 줄 아는 삶. 근심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삶. 이왕이면 이렇게 제대로 된 뉴스타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를 꿈꾸곤 한다. 난 암환자가 되었고 특별해졌다. "당신은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라고 들려왔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었으니 말이다. 난 발병 전보다 더 잘 웃는 사람이 되었으니 삶은 건 싹다고 말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생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전보다 더 특별해진 게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타인이 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보너스로 영특함까지 얻은 것 같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건강은 잠시 잃었으나 특별함에 영특함까지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아프고 힘에 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비롯한 모든 암환우분들께 파이팅을 외쳐본다.

즐린그림찾기

틀린 그림 5개를 찾아보세요~정답을 홍보실로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 에덴요양병원 매점 상품권을 드립니다(상품권 후원 연락처 : 010-9906-3004). **↓ 지난 호 정답**



- ♣ 38호 당첨자, 축하합니다! ????????
 - ♣ 상품권은 박세연 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 정답과 함께 칭찬하고 싶은 직원과 환우를 아래에 기록하고 추천해 주세요.
- () 님을 칭찬합니다. 칭찬 사연(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_____

* <에덴뉴스>는 3개월마다(예간지) 발행됩니다.

NEWS ... 에덴뉴스

분당교회 공연



9월7일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에서는 사랑이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바로 분당교회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한 찬양을 환우를 위해 마음을 다해 선보인 시간으로 감동과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김선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찬양대원들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여 준비한 곡들을 마음을 다해 찬양했고 듣는 환우들은 감동을 호응으로 표현했다. 특히 뇌수막염으로 에덴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박광호 지휘자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듣는 모든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었다.

에덴요양병원 가을운동회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은 10월13일(일) 병원인근 기양 초등학교에서 직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운동회를 열었다. 이번 가을운동회는 신안순총무과장의 사회 오신영 진행위원장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박종기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운동장에 걸린 만국기를 보니 초등학교생이 된 기분"이라며 "오늘하루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고 없는 하루를 당부했다. 이어 장창근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정재명, 이윤정직원의 선수선서로 행사는 막이 올랐다. 선수행진에 이어 남태희웃음치료사 외 8명의 직원이 펼치는 에어로빅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어 진행된 오전경기는 신발날리기, 마대릴레이, 플라 우프, 지네발릴레이, 큰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 될 때마다 청, 백팀은 우승을 위해 경기에 맞는 우수한 선수들을 출전시켰고 청팀이 10점 앞선 가운데 오전경기를 마무리했다. 선수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발야구, 피구, 계주 등 단체경기 위주로의 경기가 이어진 가운데 최종 805점으로 청팀이 우승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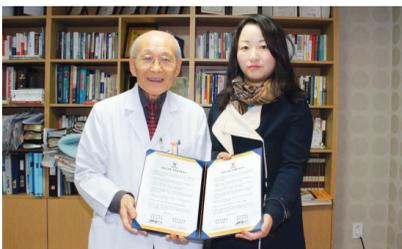
성경통신학교 졸업식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과 에덴병원교회(담임목사 오

신영)는 지난10월25일 예언의소리 박덕진목사를 초청하여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에덴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에덴병원교회는 노후보장, 환우 직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권장되어 오던 성경통신학교 공부운동이 결실을 맺어 건강의길 118명, 오늘의신앙 18명, 행복복간정 4명, 다니엘연구 3명, 요한계시록 2명 등 총145명이 수료와 졸업식을 하였다. 특히 이규호, 이석준장로는 다섯과목을 모두 공부하여 영예의 졸업장과 기념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북대학 협력체결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은 제2기 암학교를 개강했다. 암 치료에 대한 로드맵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을 위한 암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준비된 암학교 2기는 1학기(10월23일) 암 치료 기초교육, 2학기(12월11일) 암 수술 항암치료 시 면역 부작용관리, 3학기(2014년2월12일) 암 재발방지방지 관리 등 총 3학기를 진행한다.

명사 특별초청특강 진행



남양주시가 후원하여 개최한 명사특강 행사가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에서 11월29일 개최됐다. 이번 명사특별초청특강에서는 현재 사단법인 사회공헌 다사랑 월드 이사장이 며 1974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전투조종사로서 33년간 2300시간 이상을 하늘에서 보낸 이영하이사장이 강의를 맡아 단에 올랐다. 이 이사장은 "푸른창공에서 배운 소통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소통의 부족이라며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과 격려의 말을 소통의 첫출발로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영하 예비역 공군 중장은 공군사관학교 22기로 공군본부 참모차장과 공군교육사령관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무관으로 군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제7회 추계문학의 밤



제7회 추계문학의 밤

명수정 명창의 흥겨운 우리가락이 흥겨움을 더하고 환우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막이 오른 제7회 추계 문학의 밤 행사가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 대강당에서 11월6일 개최됐다. 병원환우 직원을 비롯해 남양주 인근에서 병원을 찾은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지훈, 윤정실, 직원과 정찬형, 유경자환우에 이어 남양주시인협회 황라현회원과 헤어포럼 김국애원장이 출연해 각자의 자작시를 낭송했다. 2부에서는 신창근장로님 부부의 섹스폰이 연주되고 "가는세월"을 통해 인기가 높은 서유석 가수가 특별출연해 음악치료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3부는 조진호 마석역장이 서정윤시인의 홀로 서기, 이상구 남양주신문기자가 문량란의 희망가를 각각 애송시로 준비해 낭송하고 4부는 유상수, 유종상 환우가 에덴에서의 삶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이영광 조리계장은 특유의 목소리로 My Way를 불러 청중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문학치료반은 원귀옥강사를 중심으로 문학에 관심있는 환우들이 매주 금요일 정규적인 모임 을 갖고 있으며 10여명의 환우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인도에 의료선교단 파견



에덴병원교회(담임 오신영목사)는 12월 2~10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무짜라 지역에 의료선교단(14명)을 파견하였다. 의료진과 직원으로 구성된 선교단은 김준식 선교사(자비랑)와 안드라프라데시주 남부합회와 협력하여 의료 봉사과 위생교육 및 전도회(강사 김현철 목사)와 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의료 봉사를 통하여 600여명의 환자가 초음파 검진과 약 처방을 받았으며 1,000여명에 주민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를 제공하였고 기본 위생교육도 실시하였다. 전도회에는 평균 600여 명(안식일에는 1,100명)이 참석하여 28명이 침례를 받았다. 또한 에덴병원교회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남부합회소속 5개의 지역교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후원금도 지원하여 일시적인 지원과 방편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 선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전도 기간 동안 단원들은 이벤트(한복배선소, 태권도시범, 악기연주, 음악회)를 기획하여 선보였는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지에서 활동중인 김준식 선교사는 에덴병원교회 의료선교단의 이번 선교활동은 선교사로 활동하는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한국인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회였다고 감사사를 표현했다. 이번 의료선교봉사는 사랑으로 치료하고, 선교하며, 교육하는 에덴요양병원의 사명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고 단원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에덴병원교회는 2014년에도 해외의료선교 계획을 추진중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하브롭스크교회와 협력하여 선교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지난 38호 에덴뉴스 기사 중 진신석 회장 홍보대사 위촉을 "진신석 회장으로 잘못 표기되어 이에 바로잡습니다. 에덴뉴스 편집실

최신 의학 정보



유방암 재발억제에 표적항암치료가 효과적

최근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공격하여 환자들의 고통 줄여주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가 대표적이다. 아피니토는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물질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로 기존 호르몬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폐경 후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임상결과 항호르몬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암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2배 이상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능을 입증했다. 따라서 부작용과 고통이 심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항암화학요법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또한 암세포가 장기로 전이된 정도가 심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성 있게 연장을 시켜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금 알갱이 이용한 항암백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지름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금 알갱이를 이용한 항암백신을 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상용 KAIST 생명과학과 교수(사진)와 이인현 박사 연구팀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발표했다. 항암백신은 환자 고유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활성화시켜 다시 몸으로 투입해 암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백신만으로 암을 제거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항암제 치료 때 병행 활용하고 있다. 다만 환자 맞춤형으로 제조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었다. 연구팀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금 나노 입자를 활용했다. 금 나노입자 표면이 암 항원과 면역보조제를 결합해 백신을 만들었다. 이 백신은 입자가 작아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림프절로 쉽게 이동해 관련 항체를 생산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같은 영상기기를 이용해 금 입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백신이 목표한 조직에 잘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 교수는 "몸속에 투여한 백신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기존 백신에 비해 복잡한 제조 과정도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금 나노 입자 원

천기술은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주요 사인 '위암' 억제 유전자 발견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위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위암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형진 박사팀과 서울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VDUP1 유전자'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VDUP1 유전자'를 제거한 쥐를 대상으로 암 발생 유도물질을 투여한 후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켰을 때 정상 쥐보다 위암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또 'VDUP1 유전자'를 과도하게 발현시켰을 때 각종 염증성 물질이 억제되어 위암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위암 발생이나 진행단계 예측은 물론 치료법 선택에 있어 환자의 'VDUP1 유전자' 분석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김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 예방은 물론 치료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와 아들

75세 아버지와 50세 아들이 나들이를 나섰다. 길을 건너려는데 아버지 앞 "아가 길 조심 허게라!" "네 아버지" 산책용 마친 두 부자는 영화를 한편 보기로 했다. 아들이 돈을 내려고 하자 아버지는 한사코 본인이 돈을 내시겠다고 하신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양보를 하고 영화관 계산대 앞에 선 아버지, 돈을 내밀며 "어른(75살) 하나 아이(50살) 하나, 두장 주소~ 재미있는 웃음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이메일 : pr@edenah.com

... 먹으면 약이 되는 식품 이야기



비트의 효능

붉은색 채소로 익은 썸채소로 뿌리는 식용이나 녹즙으로 먹는 비트는 16세기 독일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비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월경장애, 간장, 담낭, 신장 등의 장기의 정화제로 혈관벽을 깨끗하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즙이 한방탕 건강기호식품으로 인기를 끌 당시 케일과 함께 녹즙재료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잎채소는 썸채로 뿌리는 식용이나 녹즙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 ①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 -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준다.
- ② 변비에 좋다. - 비트에는 많은양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변비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장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장을 건강하게 한다.
- ③ 피를 깨끗하게 한다. - 비트즙의 약8%는 염소인데 염소는 간장 신장 담낭을 청소하며 림프활동을 촉진한다. 비트를 꾸준히 먹으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어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관련 성인병을 개선시키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 ④ 빈혈에 좋다. - 비트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혈액생성을 돕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 ⑤ 항암작용을 한다. - 뿌리에 다량 함유된 항암 물질로 알려진 베타인이란 색소의 항암 작용으로 암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다.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 도 중 한 -

| | |
|--|--|
|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면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시다 |
| 살아 있는 동안 빛나는 승리의 기억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더욱 세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 더 많은 꿈과 눈물이 필요한 때문이라 생각합시다 다만 내 손으로 내 삶에 뜻을 박은 듯한 이 아픔은 잊지 맙시다 |
|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은 옳았습니까 | 그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돌아서야 했던 것을 잊지 맙시다 |
| 어제까지도 우리가 거친 바람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 아직도 때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

건강을 위한 명상

건강의 원칙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거룩한 원칙을 우리의 생애에 실천 하자.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치자. 이기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자.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평화와 안식이 그대에게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행동의 숨은 동기가 구주께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존한다. 그는 그의 생애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 (청년 지도자, 1901년 9월 26일)